1936~2026 90주년
Since.1969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식지
가톨릭 메디컬 타임스
No.2332 2026.11.4
창 간 1969년 11월 14일
발행인 민창기 편집인 전영준
편집·기획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E-mail cmcpr@catholic.ac.kr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9471 Fax 02)3147-953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30주년 기념

WHO 완화의료 전문가 그룹 연례 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아시아 최초로 WHO 연례회의 개최… 글로벌 협력 과제 및 실행계획 논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이선미 교수) 호스피스연구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WHO 완화의료 전문가 그룹 연례 회의와 국제학술대회를 10월 28일(수)부터 10월 30일(금)까지 3일간 개최했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연구소장 박미현 교수)는 1996년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성장했으며, 지난 30년간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연구와 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협력을 선도해왔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질병의 전 과정에서 통증과 증상을 관리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영성 구현의 영역으로, 가톨릭 전인적 돌봄의 본질을 담고 있다.

WHO 완화의료 전문가 그룹 연례 회의(WHO Palliative Care Global Action Forum)는 연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가톨릭대 간호대학이 아시아 최초로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Leading Global Action for a World Where Palliative Care Reaches All"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연례 회의가 열렸으며, WHO 협력센터를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완화의료 전문가 등 32개국에서 약 70명이 참석했다.

회의 첫날인 10월 28일(수)에는 글로벌 호스피스 · 완화의료 분야의 연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WHO가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워크스트림(Workstream)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각 워크스트림을 중심으로 국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분야의 주요 협력 과제와 향후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10월 29일(목)에는 소그룹별 논의를 통해 전날 공유된 워크스트림을 바탕으로 회원국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활동으로 연계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글로벌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회원국별 역할과 활동 범위 등 향후 협력 체계를 수립했다.

이선미 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은 **"이번 WHO 완화의료 전문가 그룹 연례 회의는 아시아에서 최초 개최라는 의미와 함께 지난 30년간 축적한 연구 · 교육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가톨릭대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기술과 정책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누구나 필요한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인적 돌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30일(금)에는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Futuristic Evolution in Palliative Care: Harmonizing Policy, Technology, and Equity」를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국제학술대회는 이선미 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가톨릭대학교 총장 최준규 신부와 Ghauri Aggarwal APHN(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후 WHO 유럽 사무소의 Julie Ling 박사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최모나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인도 비정부기구(NGO)인 Pallium India의 Smriti Rana, 가톨릭대 간호대학 김수정 교수, WHO 비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국 소속 Megan Doherty 컨설턴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분야의 주요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박미현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장은 **"지난 30년간 국내 완화의료의 '못자리' 역할을 해온 연구소가 앞으로도 혁신적인 완화 돌봄 서비스와 학술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를 넘어 세계 완화의료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눈은 마음의 등불' 기증식–김재호 교수 부부, 故최영식 前 의료원장, 남궁성은 前 의무원장(왼쪽부터)

한국 최초의 인공각막 이식을 이끈 안과 미세수술의 개척자 김재호



김재호 교수

1980년 9월 8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의 안과 수술실. 암모니아 폭발 사고로 두 눈의 빛을 잃은 스물여섯 살 청년의 오른쪽 눈에, 미국에서 들여온 카도나형 인공각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공각막 이식이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만류 속에서도 수술을 이끈 이는 김재호 교수(프란치스코, 1936–2024)였고, 수술 뒤 청년의 시력은 1.0까지 돌아왔습니다.

김재호 교수는 황해도 수안에서 자랐습니다. 의사가 없어 고통받는 이웃을 보며 의사를 꿈꾸던 소년은 1949년 삼팔선을 넘었고, 이듬해 전쟁을 맞았습니다. 격변 속에서도 배움은 놓지 않았지만, 국가 장학금을 받은 사범학교 출신이었던 그에게 의예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은 뜻밖의 곳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학년 때 신문에서 가톨릭 의과대학의 편입생 모집 광고를 본 것입니다. 편입에 성공한 그는 1960년 가톨릭 의과대학의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그는, 안과야말로 수술 자체가 예술이어야 하는 분야라는 스승 손정균 교수의 권유를 따라 안과를 택했습니다.

삼팔선을 넘었던 소년은 의사가 되어서도 여러 차례 국경을 넘었습니다. 1970년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윌머 안연구소에서, 1975년에는 일본 도쿄대 의학부 안과에서 새로운 의술을 익혔습니다. 돌아온 그가 국내 안과계에 소개한 것은 수술용 현미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미세수술이었습니다.

1980년의 인공각막 이식은 이 오랜 준비가 맺은 열매였습니다. 이후 그는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도하여 인공수정체가 한국 백내장 수술의 보편적인 기법으로 자리 잡는 단초를 놓았고, 1984년에는 국산 인공수정체 시제품을 손수 개발했습니다. 1985년, 국내 최초로 백내장 수술을 통원으로 실시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수술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김 교수였습니다. 1993년에는 사재를 털어 안과연구재단을 세워 후학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가 수여한 명예의 전당상은 이 모든 걸음에 대한 국제 학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수술실 밖으로도 향했습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대로, 그는 꽃동네와 요셉의원 등을 찾아 소외된 이들을 진료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한 무료 개안수술 사업에 앞장서 1,3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2001년에는 남북의료협력단의 일원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북녘 땅을 다시 밟아, 그곳의 아픈 이들을 위한 의료협력의 길을 논의했습니다.

모교를 향한 김재호 교수의 헌신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성의회관 개관에 맞추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역사박물관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물관은 아직 문을 열지 못했지만, 앞선 이들의 걸음을 후대에 전하려는 뜻만은 분명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의사가 된 김재호 교수는 평생을 수술실과 봉사의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익힌 정교한 의술과 가장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 빛을 잃은 눈에 다시 빛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한국 안과학의 반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 : 인문사회의학과 원주영 연구강사)

운동신경·혈관 내피세포 통합한 3차원 인간 신경접합–근육 모델 구축

신경 활동 · 대사 스트레스에 따른 근육 반응 확인



손장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손장원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IF=29.1)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3차원으로 배양한 인간 골격근에 운동신경세포와 혈관 내피세포를 통합한 마이크로칩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신경 활동과 대사적 스트레스가 근육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존의 단일 근육세포 배양 모델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3차원 인간 골격근에 운동신경을 연결해 신경 자극에 따른 근육의 수축과 구조적 · 대사적 적응을 함께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차원 구조는 근육세포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조직에 보다 가까운 형태와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 단순한 2차원 세포 배양보다 생리적인 근육 반응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연구 결과, 반복적인 신경 자극은 근육의 구조와 에너지 대사, 포도당 이용 등에 변화를 유도해 활동에 따른 적응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고혈당 환경에서는 에너지 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 적응과 구별되는 변화가 관찰됐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추가로 통합했을 때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칼슘 반응이 달라져, 근육의 기능이 신경뿐 아니라 주변 혈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손 교수는 "당뇨병에서 근육의 대사 이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는지를 보다 실제 생체환경에 가깝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운동에 따른 근육의 보호적 적응과 당뇨병 환경에서 나타나는 대사적 손상을 비교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치료 전략을 평가하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새로운 원리 밝혀

간암의 대식세포 면역회피 기전 규명



남석우 교수, 하진웅 대학원 박사과정생 (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간암 세포 내부의 RNA 조절 이상이 주변 대식세포의 기능을 변화시켜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게 만드는 새로운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ancer Communications》(IF=28.4)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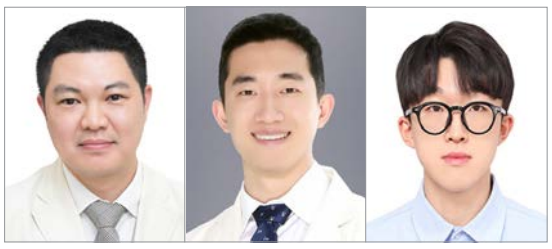
대식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 잡아먹고 제거하는 핵심 선천 면역세포다. 연구팀에 따르면 간암 세포에서 RNA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IGF2BP2'가 증가하면 'MYBL2'의 작용을 거쳐 'HMGB2' 단백질의 발현과 분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분비된 HMGB2는 주변 대식세포의 'RAGE' 수용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대식세포 본래의 식균 능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식세포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암세포가 대식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대표적 기전으로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이 '나를 먹지 말라(Don't eat me)'는 신호를 보내는 'CD47 – SIRPα' 축이 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암세포의 RNA 조절 이상이 HMGB2 분비를 촉진해 대식세포의 기능을 직접 조절 · 변형시킴으로써 면역공격을 회피한다는 새로운 경로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간암 세포가 대식세포를 무력화시키는 'HMGB2 – RAGE' 신호를 차단했을 때 대식세포의 암세포 제거 기능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면역회피 신호 조절을 넘어 대식세포 본연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간암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표적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장 지키는 항체' IgA, 과한 음주시 간에서는 염증 키운다

'장 – 간 IgA 면역축' 다각적 실험 통해 규명



성필수 교수, 탁권용 임상강사, 김민구 석사과정생(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탁권용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과 김민구 석사과정생)은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증가한 IgA가 간으로 이동해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고, 강한 염증반응과 간세포 손상으로 이어지는 '장–간 IgA 면역축'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IF=24.6)에 최근 게재됐다.

IgA(면역글로불린 A)는 주로 장 점막에서 미생물의 침투를 막는 대표적인 방어 항체다. 알코올 연관 간질환 환자의 혈중 IgA 수치가 높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 잘 알려져 있었으나, 이 수치 증가가 단순한 질환의 결과물인지, 혹은 간 염증과 손상을 직접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환자 조직 및 동물모델, 공간전사체 분석을 결합해 규명에 나섰다. 분석 결과 환자의 혈중 IgA 수치가 높을수록 간 조직 내 축적이 심화됐으며, IgA가 간의 단핵구 및 대식세포와 결합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베타(IL–1β) 분비를 촉진하고 간 손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 투여 동물실험에서도 동일한 기전이 관찰됐으며, 면역세포 조절 약물(FTY720) 투여 시 간 내 IgA 결합 대식세포와 염증 손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 유래 물질에 편중됐던 기존 '장–간 축' 연구를 넘어, 장에서 생성된 면역항체 자체가 간 염증을 직접 조절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향후 IgA 면역반응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검증과 대식세포 상호작용 억제 치료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손상된 심장의 세포 생착률 · 재생 효과 높이는 표면 개질 기술 개발

신기술 표면 개질로 손상된 콜라겐만 선택 결합



구희범 교수, 박훈준 교수(왼쪽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공동 교신저자, 의생명과학교실 · 합성생물학사업단)와 박훈준 교수(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동현 · 심우섭 · 박재현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심근경색으로 손상된 심장 조직의 변성 콜라겐에 이식 세포가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유도해, 세포의 생착률과 심장 재생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세포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인간 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hPSC–CMs)는 근본적 재생이 어려운 심근경색의 대안 치료로 주목받지만, 낮은 생착률과 생존율이 한계로 꼽혀왔다. 이에 연구팀은 심근경색 부위 세포외기질에 변성 콜라겐이 다량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클릭 화학과 지질 삽입 기술로 심근세포 표면에 콜라겐 결합 펩타이드(CHP)를 부착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별도의 유전자 조작 없이 1시간 이내에 표면 개질이 가능해 안전성과 임상 적용성을 크게 높였다.

실험 결과 표면이 개질된 심근세포는 손상된 변성 콜라겐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했으며, 개질 후에도 세포 고유의 구조와 전기생리학적 · 대사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허혈–재관류 손상 동물 모델에 이를 이식한 결과, 대조군 대비 좌심실 박출률과 수축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심장 재형성 억제와 우수한 재생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Bioactive Materials≫(IF=23.6)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PEOPLE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의 시작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고승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내분비학 연구실 연수를 거친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고승현 교수는 지난 10년 이상 당뇨병학회, 내분비학회 등 주요 학회에서 학회지 간행과 진료지침 제정 작업을 수행해 왔다. 2형 당뇨병의 베타세포 손상 기전 및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그는, 원내에서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을 맡아 조직문화 개선을 이끈 공로로 영성구현대상과 원내 '올해의 빈센트인'을 수상했다. 연구자이자 임상의사, 그리고 병원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고승현 교수를 만났다.



내분비내과 및 현재의 세부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내과 전공의 1년 차의 첫 시작을 내분비내과에서 한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분야 자체가 흥미로웠고, 당시 1년 차 전공의로서 손호영, 차봉연, 윤건호, 안유배 교수님들 곁에서 학문적인 부분과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실험과 연구를 처음 접할 기회가 있었던 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빈센트병원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설립됐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대응, 병원 인증평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등으로 교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들로부터는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자주 접하면서 병원 전반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활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제8대 병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며 이러한 원내 분위기를 체감하셨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조직문화를 변화의 방식으로 택하셨습니다. 최고의 환자 경험을 목표로 두고, 환자분들에게 좋은 의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하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직장이라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위원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공식 조직도상에는 없지만 병원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격인 '나비(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의 시작)'와 원하는 사업에 지원한 교직원들로 이루어진 '바이브(좋은 분위기와 느낌을 선도한다는 의미)'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을 맡으시며 가장 먼저 들여다본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셨나요?

특정 목표를 정하기보다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직군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교직원들 내면의 '해봐야 안 될 텐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지닌 병원에 대한 애정과 열정, 그리고 진심 어린 참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만 했던 사업들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출근이 재미있다'는 경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서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감사를 전하는 '부서탐방'과 '칭찬게시판'을 비롯해 수녀원 축제, 수원시 연계 학술 행사, 전 교직원 교양강좌, 가족 행사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으로 영성구현대상을 수상하시고, 올해 원내에서 1명만 선정하는 '빈센트인'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게는 너무나 영광이고 과분한 상입니다. 상을 받고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병원 2,500명 전 교직원이 바로 빈센트 성인입니다. 교직원분들을 더 진심으로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진료와 연구, 그리고 조직문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나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 병원이 디지털 의료와 스마트 의료를 먼저 시도해보는 인프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실패를 겪어보려 합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 일이 나와 동료에게, 그리고 우리 병원을 찾으신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느끼시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교직원분들께 알리고 쉽게 참여하시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V-AX(AI 업무자동화) 프로젝트를 더 많은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일하는 원내 교직원들과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직원들께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교직원들께서 격려와 참여로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리 병원의 조직문화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우리 성빈센트병원의 최고의 복지는 바로 우리 동료들입니다.

환자분들께도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최고의 경험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짐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PEOPLE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삶으로 구현하는 영성'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

2018년 신설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는 나프로임신센터, 가정간호팀, 호스피스완화의료팀, 그리고 의료윤리사무국을 아우르며 환자의 생애 전 주기를 돌보고 있다. 영성간호부장 김양희 비비안나 수녀와 현장 간호사들을 만나 '삶으로 구현하는 영성'과 전인 돌봄의 의미를 들었다.



(좌측부터) 영성간호부장 김양희 수녀, 가정간호팀 전준선 차장, 의료윤리사무국 신영서 선임,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이수영 JM, 나프로임신센터 김영선 수석, 최미혜 선임

서로 다른 영역의 부서들이 영성간호부라는 하나의 팀으로 모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각 부서가 마주하는 환자와 상황은 다르지만,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킨다'는 하나의 생명 주기 선상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가톨릭 의료기관 고유의 영성을 강화하고자 2018년 가정간호팀,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영성간호팀으로 출범했고, 나프로임신센터 개설과 의료윤리사무국과의 공동 사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주 1회 정기 미팅을 통해 기관의 방향성과 현안을 공유하며, 단순한 질환 치료를 넘어 환자의 전 생애를 지키는 하나의 팀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유한 역할과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프로임신센터는 난임 부부와 동행하며 부부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도록 돕고, 지난 29년간 경기북부 재택돌봄을 지켜온 가정간호팀은 현재 2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 내 다양한 환경적 변수와 가족의 위기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환자의 신체적 통증 완화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마지막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며, 의료윤리사무국은 현장 간호사들이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소신 있게 환자 편에 설 수 있도록 가톨릭 생명 윤리 원칙이라는 버팀목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전 주기를 다루는 만큼 서로의 업무를 보며 느끼는 연대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다루는 단계와 임상 현장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온전한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품고 있구나' 하는 강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나프로가 생명의 탄생을 돕고, 가정간호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호스피스가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의료윤리가 그 기준이 되어줍니다. 삶의 외형적인 조건을 떠나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을 향한다는 같은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원내 간호사와 교직원들의 마음을 돌보는 교육과 프로그램도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간호부와 협력해 신규 4개월 차 간호사를 위한 1:1 개인 면담 프로그램인 '마음둥지'를 운영하고, 신규 6개월 차 교육과 경력별 인재육성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 임종간호, 연명의료, 나프로임신법 등 가톨릭 의료기관에 특화된 영성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TCI 검사를 활용한 '나의 참모습 찾기', 감정 오일 상담, 독서·필사 모임, 신망애 영성 소모임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치유자로서의 긍지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를 넘어 경기북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각 부서의 전문 지식과 가톨릭 영성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2024년부터 '찾아가는 돌봄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의 주기별 영적·의료적 돌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 강좌와 의료봉사, 나눔을 실천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세 곳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나프로임신센터와 영적 돌봄을 연계해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루는 주제가 무겁고 소진(번아웃)되기 쉬운 현장인데,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영성간호부의 슬로건은 '삶으로 구현하는 영성'입니다. 영성을 거창한 종교적 실천이 아닌 동료와 환자를 향한 따뜻한 본성으로 바라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이가 먼저 건강해야 하기에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목팀과 협력한 정서·영성 돌봄 프로그램과 성지순례, 피정뿐 아니라 영화 관람, 나들이 등 일상 속 조직 활성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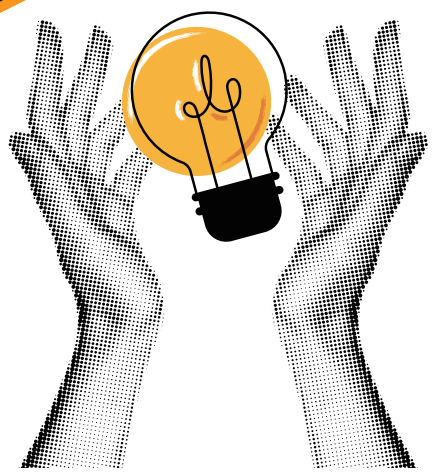
이 팀이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인치유와 영성 간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체적 질병이나 처치를 넘어 환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 마음, 그리고 영혼의 고통까지 함께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이 귀하듯 환자와 보호자, 동료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취약한 순간마다 진심 어린 경청과 따뜻한 손길로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간호입니다.

원내 동료 교직원들과 환자 ·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동료 교직원들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명을 보살피는 사명을 실천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병원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겨운 투병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삶의 가장 아픈 순간에도 외롭지 않도록 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위 인터뷰는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 소속 6인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6인의 답변을 재구성해 게재합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사랑과 존엄이라는 가치

작은 아이디어가 의료 현장 혁신으로, 겨자씨키움센터, '202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 파크에서 '2026 겨자씨키움센터 데모데이 6'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겨자씨키움센터는 2021년 2월 개소 이후 매년 '혁신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료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낼 '미래위원'을 선발 · 육성해 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6기 미래위원 19개 팀은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전문 멘토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무대에 오른 상위 9팀의 무대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수상이 진행됐다. 행사장 외부에는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부스존이 설치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6기 미래위원 팀 전체의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겨자씨키움센터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꽃피워 의료 현장과 헬스케어 산업으로 연결하는 혁신의 장으로 성장했다"며, "6기 미래위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이 오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현장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상 천리안팀

백내장 수술 전 여러 가

백내장 수술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클리닉을 통해 수술

[As-is]
- 사전 시야 예측 불가
- 단순 설명 의존(체험 수단 부재)
- 기대치 불일치 위험

[To-be]
- 사전 시야 직·간접 체험
- 2단계 입체 검증 (영상 시청 · 시뮬레이터)
- 최적의 렌즈 선택

영상 확인과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이중 검증



천리안팀 수상

▶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 황호식, 윤혜연, 윤지현, 김현경

▶ **부천성모병원** 안과 – 김은철

수술 후 나의 시야, 미리

아이디어 구상 계기가 있다면?

최근에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 어떻게 보이는지 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여러가지 다초 정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

먼저 싹튼 겨자씨



겨자씨키움센터 2025년 데모데이5에서, **구로파워팀**(서울성모병원 수술간호팀, 의공학팀)은 원심력 모터 기반 최소 침습 수술기구 자동 건조기를 개발해 당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원심력 건조 방식을 적용해 수술용 최소 침습 기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기존 수작업 건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며, 환자 안전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구로파워팀은 2026년 데모데이6에 참여해 해당 제품은 현재 프리토타입 검증을 거쳐 실제로 제작됐으며, 현장 실증을 통해 수작업 부담 감소와 에어건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경감, 재처리 표준화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원심력 모터 기반 최소 침습 수술기구 자동 건조기

최우수상 지금이바꿀타임팀

듀얼 시린지형 카트리지

차세대 카트리지 구조에 중앙제어·자동입력 등의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인퓨전 펌프를 개발해 투여오차, 과량주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 만족도와 의료진 업무 효율 제고





데모데이 이모저모 6



데모데이6 단체사진


포스터전시존 전경


부스존 및 포토존


참가팀의 부스에서 설명을 듣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바오로 주교


대상 천리안팀 발표 사진


응원 중인 교직원 일동

를 더할 수 있게

26년 데모데이6' 성료

가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체험할 수 있는 클리닉 개발

후 환자의 만족도 상승

세계 최초 다초점인공수정체 체험장치' 개발

최적의 렌즈 선택으로 수술 후 환자 만족도 극대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운영 중인 다초점인공수정체 클리닉

"보다"

많이 사용
미리 알 수
초점인공수
었습니다.

Q. 제품 구현의 기대 효과는?

이 다초점인공수정체 시뮬레이터 안에는 작은 수조가 있고 이 안에 실제의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체험자는 이 시뮬레이터의 구멍을 통해 멀리 있는 사물, 가까이 있는 사물, 어두운 곳에서 교통신호 등을 관찰하여 실제로 어떻게 보일 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는?

시뮬레이터를 보다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금씩 수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행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적용한 고정밀 · 스마트 수액주입펌프

우수상

- ▶ **헤모시그널팀** | 적극적 출혈 감지 솔루션 개발
- ▶ **옴니가드팀** | 마약 잔량 안전 반납을 위한 Safe-return syringe 개발
- ▶ **ReCOUGHvery팀** | 국내 첫 처방형 만성기침 디지털 치료 플랫폼 ReCOUGHvery 개발

장려상

- ▶ **Medicore팀** | 모듈화된 생성형 AI 기반 진료 요약(Summary) 자동생성 시스템
- ▶ **간호사라면 이정도팀** | 정맥(Vena) 혈류를 차단(Lock)하는 반복 차단 일반 정맥 카테터 'VenaLock(베나락)' 개발
- ▶ **투게더팀** | 스마트 드레싱 패드/pH 및 온도 변화 기반 비침습적 상처 모니터링
- ▶ **EyoTnet팀** | AIoT 융합 기술을 활용한 안약 점안 순응도 및 치료 지속성 개선 플랫폼 개발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미래 도약을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확장 공개 및 축복식 개최

기존 대비 약 3배 규모 제조소 확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인프라 고도화**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이 지난 10월 29일(목)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새롭게 확장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를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축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축복식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생명산업연구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김완욱 의생명산업연구원장, 곽승기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내 · 외빈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정순택 대주교의 축복식으로 시작해 곽승기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장의 사업 경과보고와 정순택 대주교,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축된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를 둘러보며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에 의생명산업연구원에 새롭게 구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임상 연구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소는 약 300평 규모로, 기존 시설 대비 약 3배 확장됐으며 원료보관실, 완제품 보관실, 폐기물 처리실 등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생산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개별 세포생산실의 작업 공간을 확대하고, 양압 생산실 2개와 음압 생산실 1개를 새롭게 설치했다.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은 음압 생산실 확충으로 바이러스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분류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융복합제제까지 4종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은 2005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의료연구본부로 출범한 이래, 연구체계 정비와 핵심 인력 유치 · 육성, 국제적 인프라 확충을 이어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에는 세포생산실(GMP)을 준공해 면역세포치료제, 췌도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 다양한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증축된 제조소에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난치성 질환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환우들에겐 현대의학의 은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역사 심포지엄

CMC, 치유 사목의 길을 열다

일시: **2026년 11월 19일(목)**
13:00~17:00

PROGRAM	
시간	제목
13:00~13:30	등록
13:30~13:45	안내말씀, 개회사/축사
13:45~14:10	제도 이전의 원목 : 전직원 원목화에서 원목실 설치까지, 1859~1966
14:10~14:35	CMC 원목활동의 제도화 Ⅰ : 시작과 발전, 1966~1986
14:50~15:15	CMC 원목활동의 제도화 Ⅱ : 의료환경의 변화와 대응, 1987~2006
15:15~15:40	세브란스병원 원목활동의 역사와 현황
15:50~16:40	종합토론
16:40~16:55	총평 및 폐회사

심포지엄 사전등록

2026년 11월 6일 금요일까지 접수

아래 URL 접속 또는
하단 QR코드를
촬영하여 참여
https://forms.gle/
HWYY7FPdhm2iKiVPA

서울성모병원

홍보대사 다섯쌍둥이, 건강하게 두 돌 맞아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부터 성장 · 발달 추적관리까지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새힘 · 새찬 · 새강 · 새별 · 새봄'이가 건강하게 두 돌을 맞았다.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던 오둥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일파티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추석 인사와 함께 근황을 전했다.

오둥이는 2024년 9월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태어났다. 산모의 전자간증으로 임신 27주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아 3명과 여아 2명은 모두 1kg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였다.

출생 후 막내의 장 천공 수술, 넷째의 6개월간 입원 등 호흡기 치료와 집중 돌봄을 거쳐 차례로 퇴원했다. 퇴원 이후에도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전문의 진료 및 소아재활의학과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운동 · 인지 · 언어 발달 상태를 지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다.

오둥이 엄마는 "작은 몸으로 매일 보석 같은 기적을 써내려가는 우리 아기들과 그 길을 함께하는 부모님을 마음 다해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10월 19일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오둥이 부모와 간담회를 가지고 출산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위험 산모 · 신생아를 위한 의료 현장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숭실대와 의료 빅데이터·AI 공동연구 나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숭실대학교와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상 전문성과 숭실대의 AI · 통계 ·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공동연구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질환 진단 · 예후 예측 AI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양 기관 연구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AI와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의료진과 AI 연구자 · 학생을 대상으로 교차교육을 추진한다. 병원은 임상 현장과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은 AI ·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제공해 의료와 AI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도 공동으로 기획 · 수행한다. 공동 학술행사와 의료 AI 경진대회를 열고, 연구 인프라 활용과 전문가 교류 · 자문 등으로 협력을 넓힐 예정이다.

의정부성모병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 10월 13일(화)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하트병원, 로체스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양주예쓰병원의 병원장 및 주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의정부성모병원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각 기관에 협약 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대비한 본원의 중점 추진 현황과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참석한 협력병원장들은 "의정부성모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태규 병원장은 "지역 협력병원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하여 협력병원들과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 전담간호사 우수사례' 발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열린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교육 전담간호사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약 270명이 참석했다.

부천성모병원은 3개월간의 프리셉터십을 비롯해 독립 후 현장교육, 단계별 종합평가와 코멘토링 등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운영 만족도는 2026년 1분기 4.95점, 2분기 4.87점(5점 만점)으로 두 분기 연속 목표치(4.8점)를 상회했다.

발표를 진행한 이재은 팀장은 "신규간호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독립 이후에도 교육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성모병원은 교육 계획부터 운영, 평가와 분석, 결과 환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자용 표준 교육 매뉴얼 개발과 EPA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 독립 후 적응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은평성모병원

'2026 건강도시 은평 의료봉사 한마당' 성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은평구보건소와 함께 '2026 건강도시 은평 의료봉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웃과 마음을 잇고, 일상에 건강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점검하고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ESG – Social)을 실천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은평성모병원은 현장에 4개 구역(A~D존) 13개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상담과 검사를 제공했다. ▲A존(암 · 심혈관 · 응급 · 뇌신경센터, 간호부)은 주요 질환 상담 및 심전도 · 하임리히 처치 교육을, ▲B존(영상의학 · 진단검사 · 재활의학팀)은 갑상선 초음파 · 혈당 검사와 인지기능 체크를 진행했다. ▲C존('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나프로임신센터)은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연임신 상담을, ▲D존(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맞춤형 검진 추천과 적정진료 캠페인을 안내했다.

CMC 단신

의과대학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가 최근 성의회관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교육 성과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의학, 다시 인간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세션 발표를 통해 학과의 대표 프로그램인 '옴니버스(OMNIBUS)' 교육과정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AI 시대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간 존엄과 본질적 가치를 점검했다.

간호대학

중국 대련 의과대학 초청 방문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는 최근 중국 대련 의과대학 방문단과 WHO 협력센터 연구원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옴니버스파크, 성의회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 · 연구 환경을 살폈다. 양 기관은 주요 연구 활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공유했으며, 이를 계기로 간호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도 제23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전원 합격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2026년도 제23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험에는 가정간호, 감염관리간호, 종양간호, 호스피스간호 등 4개 분야에서 총 45명이 응시했으며, 45명 전원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가정간호 11명, 감염관리간호 13명, 종양간호 11명, 호스피스간호 10명이 전원 합격했다.

서울성모병원

오만 MCMSS와 스마트 헬스케어 협력 본격화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오만 군 · 보안기관 의료도시(MCMSS)와 가상 컨퍼런스를 열고 스마트병원 및 로봇수술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지난해 체결한 MOU의 후속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지열 병원장과 홍성후 로봇수술센터장은 병원의 AI 전환 로드맵과 안전 중심의 로봇수술 운영체계를 각각 발표했다. 양 기관은 향후 의료인 연수와 진료협력, 정기 학술교류를 이어가며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종로구와 퇴원환자 통합돌봄 업무협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OUIDO ST. MARY'S HOSPITAL

종로구

여의도성모병원은 10월 1일 종로구청과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원은 퇴원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 · 평가해 종로구에 연계하고, 종로구는 환자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IFC SEOUL서 유방암 환자 치료비 2,500만원 기부받아



여의도성모병원이 IFC SEOUL로부터 저소득 유방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개최된 IFC SEOUL 입주사 임직원 행사 '2026 로맨틱한끼' 참가비 수익금과 매칭기금을 더해 마련된 것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을 향한 지원은 올해로 4년째다. 병원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

'1004 Day' 맞아 나눔 실천



부천성모병원 간호부는 '1004 Day'를 기념해 자체 캐릭터 '뿌꼼' 굿즈 판매 수익금과 물품을 사회사업팀에 기부했다. 폐유니폼을 업사이클링해 부서별 간호사 복장 5종으로 제작한 뿌꼼 인형은 교직원과 내원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부는 판매 수익금 1,004,000원을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은평성모병원

'2026 뇌졸중 건강강좌' 개최



은평성모병원은 10월 29일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의 뇌혈관 건강 증진을 위한 '2026 뇌졸중 건강강좌'를 열었다. 뇌졸중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좌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비롯해 뇌경색 약물치료, 뇌혈관 시술 및 수술 등 최신 예방 · 치료 정보를 폭넓게 다뤘으며, 아울러 현장 자율 혈압 측정 등을 통해 일상 속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환자 ·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개최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최근 마리아관 옥상정원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 옥상정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휴식을 제공했다. 김은정 음악치료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마음을 나누고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제9대 회장 취임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KOSESS)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 연구회를 이끈다. 김 교수는 임기 동안 글로벌 학술 교류와 교육 혁신, 차세대 연구자 육성을 위한 펠로우십 신설 및 창립 10주년 기념 교과서 편찬 등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가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받았다. 임 교수팀은 진행성 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전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예후 및 중증 부작용과 연관됨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혈액검사만으로 치료 반응과 부작용 위험을 사전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해 의미를 인정받았다.

대한세포병리학회 학술대상·학술우수상 동시 수상

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 임광일 교수와 서경진 교수가 9월 11일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제38차 가을학술대회'에서 각각 제28회 학술대상과 학술우수상을 받았다. 임 교수는 다기관 이미지를 활용한 난소암 검출 AI 모델 개발 연구로, 서 교수는 폐암에 의한 악성 흉수를 판별하는 AI 모델 연구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동시 수상은 병원 병리과의 AI 연구 역량을 입증하며 향후 암 진단의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미국수부외과학회 '최우수 비디오상' 수상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주엽 교수가 9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81회 미국수부외과학회(ASSH) 연례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비디오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손목 인대 손상 치료를 위해 관절경적 등쪽 주상삼각인대 성형술을 새롭게 개발해 수술의 안정성과 독창성을 입증했다. 해당 수술법은 연부조직을 보존하면서 손목 회전 운동을 유지하고 복합 손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최지욱 교수가 최근 열린 '2026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을 받았다. 최 교수 연구팀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경과를 분석해, 전기진단검사보다 신체검사 소견과 치료 전 증상 정도가 예후 예측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환자별 맞춤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대장항문연구서밋 수술비디오 우수구연상 수상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현경 교수가 최근 열린 '국제대장항문연구서밋(iCRS) 2026'에서 수술비디오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교수 연구팀(계봉현 · 유니나 · 문지연 · 김현경)은 해부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확한 수술층을 확보하고 복횡근 이완술을 병행하는 혁신적인 수술 기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7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맞아 발전기금 기부

반세기 이어온 모교 사랑, 후배 의료인 양성 위해 뜻 모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7회 동기회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9,19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0월 8일 열린 '의과대학 17회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에서 진행됐다.

이날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전영준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동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의과대학 17회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장석일 의과대학 총동문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가톨릭대 의대 17회 동기회를 대표해 허은 동기회장이 답사했다. 이어 허은 동기회장이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졸업생들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후 김명철 동문이 소장해 온 '의과대학 영자 신문 창간호'를 모교에 전달하는 사료 기증식이 진행됐다.

동기들을 대표해 기부금을 전달한 허은 가톨릭대 의대 17회 동기회장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기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이 의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동기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졸업 후 모교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고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뜻을 모아주신 선배들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인천성모병원, 이형섭·구정순 부부 병원발전기금으로 심장혈관센터 새롭게 조성

기부받은 3억 원 활용… 심장중환자실 · 심혈관촬영실 갖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이형섭 · 구정순 부부가 기부한 병원발전기금 3억 원을 활용해 심장혈관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이형섭 · 구정순 부부는 2024년 우수 의료인 양성과 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병원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해당 기금을 심장혈관센터 구축에 활용했고, 센터는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8일 이형섭 · 구정순 부부를 초청해 병원발전기금의 사용 현황을 안내하는 기부자 안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장혈관센터의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후원인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심장혈관센터는 신관 7층에 위치한다. 총면적은 약 227평이다. 심장중환자실과 심혈관촬영실을 갖춰 심혈관질환 환자의 진단과 중재시술, 집중치료를 위한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심장중환자실은 9병상으로 음압격리 1병상과 양압격리 1병상을 포함한다. 심혈관촬영실은 2개실과 투시촬영실(C-ARM ROOM) 1실을 갖췄다. 필립스 '아주리온 7B20/15'와 '아주리온 7M12'를 도입해 심혈관 중재시술과 심장혈관 영상 촬영 등에 활용한다.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이형섭 · 구정순 부부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병원발전기금이 심장혈관센터 조성과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 사용됐다"며 "기부의 뜻을 깊이 새기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선진	2,575,290원	강은진	50,000원
권필기	50,000,000원	최종상	5,000,000원

대학(성의교정)

(재) 삼공장학재단			32,816,000원
(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총동문회장학재단			54,948,000원
(재)우덕재단	20,076,000원	(재)정산장학재단	1,500,000원
(재)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5,580,000원
(주)더블유앤에이치			1,000,000원
구정완	4,000,000원	김기범	10,000,000원
김수환	500,000원	김용민	5,000,000원
김해정	5,000,000원	김해정	10,000,000원
송선영			100,000원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			18,000,000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7,500,000원
재단법인 종익장학회			32,202,000원

서울성모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		500,000원	(재)한국의학연구소		4,500,000원
(주)아즈라		20,000,000원	(주)아즈라		16,000,000원
(주)한솥		1,000,000원	(주)한솥		9,000,000원
vc센터		1,000,000원	강숙희		1,000,000원
고영경	매월	30,000원	김미수		300,000원
김민진		1,000,000원	김수진	매월	3,000원
김정숙	매월	3,000원	김진숙	매월	5,000원
김태양	매월	3,000원	문혜신	매월	10,000원
민경숙	매월	5,000원	박재명		500,000원
박지연	매월	3,000원	박혜령	매월	10,000원
배은경	매월	3,000원	송윤정	매월	3,000원
신규덕		10,000,000원	심주현	매월	5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33,100원
양정아		1,000,000원	오승훈	매월	5,000원
이규은	매월	10,000원	이규은	매월	10,000원
이미희	매월	10,000원	이서아	매월	3,000원
이성욱		22,000원	이영주	매월	3,000원
이은정		300,000원	이재항		5,000,000원
이종화		50,000원	이준석		50,000원
익 명		100,000원	임미진	매월	3,000원
임성민		300,000원	임수경	매월	3,000원
임지수		30,000원	장복례		10,000,000원
장복례		90,000,000원	장 선		30,000원
장 선		40,000원	장 선		50,000원
장유진	매월	20,000원	장정수	매월	3,000원
정경하	매월	50,000원	정 영		3,000,000원
정은영	매월	3,000원	조은경(故김재현)		10,000,000원
직접판매공제조합		1,100,000원	최선희	매월	3,000원
최인섭		1,000,000원	최진명	매월	3,000원
한아연	매월	3,000원	홍기표	매월	10,000원
홍성범		5,000,000원	홍성범		45,0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2026 IFC SEOUL 로맨틱한끼			19,880,000원		
김은기		1,000,000원	문자운		500,000원
이지은	매월	10,000원	정수진		300,000원
정수진		900,000원	조인기		1,00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주)블리츠웨이프로덕션			5,000,000원		
김서희		290,000원	이현미	매월	5,000원

부천성모병원

김영규	2,800,000원	미가푸드	10,000,000원
부천성모병원 간호부	1,004,000원	송소희 매월	10,000원

은평성모병원

김세란		1,000,000원	김양곤		5,000,000원
김양곤		5,000,000원	김양곤		2,000,000원
김양곤	매월	50,000원	김용년	매월	500,000원
김형미		10,000원	김형미		10,000원
박종우	매월	50,000원	이제훈		2,000,000원
이해용		1,000,000원	익 명		30,000원
황영희		1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가톨릭대 의과대학

대학정보공시 전체·국제전문 논문 수 전국 1위

전임교원 연구성과 지속향상, 의과대학 연구 경쟁력 입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구부문의 주요 지표인 전임교원의 '전체 논문 수'와 '국제전문 논문 수'에서 모두 전국 의과대학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표된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수는 올해 4월 1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논문은 저자 역할별 기여도를 반영한 산정식에 따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집계한다. 이번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체 논문 수는 812.8605, 국제전문 논문 수는 730.9451으로 전국 의과대학 40개 가운데 각각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연구비 부문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교외연구비 총액'은 전국 2위, '교내연구비 총액'은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교외연구비는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체 등 외부 연구과제 수주 역량과 연구활동의 규모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가톨릭대 의과대학의 활발한 연구과제 수행과 산 · 학 · 연 · 병의 협력 기반을 보여준다. 교내연구비 역시 소속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초 ·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연구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 · 임상 · 융합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성모

인천 최초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TMVR) 시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인천 지역 최초로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TMVR,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에 성공했다.

이번 환자는 10년 전 조직형 인공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던 80대 여성으로, 판막의 퇴행성 변성으로 협착과 역류, 호흡곤란이 악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개흉 재수술 위험이 높아 TMVR을 시행했다.

TMVR은 카테터를 이용해 기능이 저하된 기존 인공판막 안에 새로운 판막을 삽입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수술로 삽입한 조직 판막은 시간이 지나면 변성될 수 있는데, TMVR은 가슴을 열지 않아 신체적 부담이 적고 재수술 위험이 큰 고령 ·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이번 성공으로 인천성모병원은 지역 내 고난도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빈센트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관계자와 의료 교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주요 인사들에게 선진 의료 기술과 스마트병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류 협력에 나섰다.

성빈센트병원은 9월 9일, 경기도 주최 · 경기국제의료협회(GIMA) 주관 '2026 경기도 메드테크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타슈켄트주 부주지사와 보건국장 등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견학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병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례(의료혁신실 부실장 조철범 교수)와 인공지능 및 산부인과 로봇수술 현황(기획조정실장 윤주희 교수)을 소개했다. 이어 방문단은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임상 현장을 확인했다.

윤주희 교수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의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빈센트 대전성모

'다빈치 SP' 추가 도입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단일공(SP, Single Port)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각각 추가 도입하며 로봇수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다빈치 SP는 단 하나의 절개창으로 기구를 삽입해 수술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다빈치 Xi 2대와 SP 2대 등 총 4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게 됐으며, 누적 수술 1만례 달성을 앞두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역시 기존 다빈치 Xi에 이어 SP 1대를 본격 가동하면서 누적 1,000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양 병원은 급증하는 로봇수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맞춤형 정밀 치료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대전 성모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연구 활성화 MOU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한국기계연구원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및 첨단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대전성모병원은 지난 10월 2일 오후 상지관 8층 회의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첨단의료기술 분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연구과제 및 기술 현황 공유,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첨단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나노 · 3D 바이오프린팅 의료기술, 진단 및 헬스 모니터링, 광학 · 플라즈마 · 소재 융합기술, 의료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혈액병원,
ICBMT 2026 '2년 연속 최다 수상' 쾌거

전체 30건 중 8건 석권… CAR-T·정밀이식 등 '환자 맞춤형 차세대 치료' 선도

2년 연속
최다 수상 기록 달성
(2025~2026)

8 / 30건 (27%)
국내 의료기관 중
최다 연제 수상

1,000+명
30여 개국
글로벌 석학 호평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이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6)에서 총 30건의 수상 연제 중 8건을 석권하며 2년 연속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전 세계 30여 개국 1,000여 명의 혈액질환 석학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성모병원은 고난도 조혈모세포이식부터 첨단 세포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대거 발표**하며 아시아를 선도하는 치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혈액내과 윤재호 교수의 최고 영예인 '최우수 구연상'을 필두로 민기준·곽대훈·이정연·박소연 교수(이상 혈액내과), 유재원 교수(소아청소년과)의 '구연 우수상', 변성규 교수와 조현이 임상강사(이상 혈액내과)의 '포스터 우수상'까지 총 8건**에 달한다. 연구진은 CAR-T 치료 후 재발하거나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나이로 인해 이식을 주저하던 고령 환자와 고령 공여자의 이식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치료 기회를 넓혔다. 여기에 환자 체성분에 맞춘 정밀 투여와 약제 전환 지침까지 정립해, 이식 후 합병증은 줄이고 장기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치료의 새 표준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유진 혈액병원장은 **"2년 연속 최다 수상은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의 완치 기회를 열어주고자 매진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임상 노하우와 세포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난치성 혈액질환 극복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진료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교수
혈액내과 | 최우수 구연상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표적치료제 안전 전환 지침 확립



민기준 교수
혈액내과 | 구연 우수상
CAR-T 치료 실패 후 이중특이항체·동종이식 연계 요법 제시



유재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 구연 우수상
소아 재발·난치성 백혈병 CAR-T 및 2차 맞춤 이식 성과



곽대훈 교수
혈액내과 | 구연 우수상
환자 체성분 기반 면역억제제 정밀 투여 지침 확립



이정연 교수
혈액내과 | 구연 우수상
65~69세 고령 다발골수종 환자 자가이식 생존율 향상 입증



박소연 교수
혈액내과 | 구연 우수상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형제 공여자 연령 기준 임상 규명



변성규 교수
혈액내과 | 포스터 우수상
다발골수종 3차 이상 재발 환자 표적 병용 치료 전략 규명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sungmo.or.kr

림프종 첨단재생의료 치료, 가장 궁금한 5가지

-내 면역세포로 재발 위험을 낮추는 치료, 대상부터 효과·비용까지-

Q1 어떤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치료로 암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 질환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암입니다. 항암치료 등으로 검사상 암이 확인되지 않는 **'완전관해'**에 도달한 환자 중,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추가 치료를 시행합니다. 모든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기존 치료 반응, EBV 관련 검사, 재발 위험인자, 전신 상태 등을 평가해 승인된 치료계획의 기준에 따라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암이 사라진 뒤에도 왜 필요하고, 재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암세포를 겨냥해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입니다.

완전관해는 현재 검사에서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치료는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해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조사가 공시한 임상 2상 결과에서 **"2년 무질병생존율은 치료군 95.0%, 대조군 77.6%"**였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재발이나 사망 없이 지낸 비율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재발 억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개인의 완치 확률을 의미하거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내 면역세포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환자의 T세포 중 EBV의 특징을 알아보는 세포를 몸 밖에서 키워 다시 투여합니다.

T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확보한 T세포를 활용해, EBV 관련 표적을 가진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준비합니다. **CAR-T 치료처럼 T세포에 인공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된 임상 2상에서는 치료제와 관련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나 3등급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은 있어, 세포 채집부터 투여 이후까지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대상자 평가와 세포 채집·제조를 거친 뒤, 총 12주 동안 8회 투여합니다.

먼저 검사와 진료를 통해 치료 적합성을 확인하고, 혈액에서 필요한 세포를 채집합니다. 이후 전문 제조시설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품질을 확인한 뒤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 **투여 일정: 4주간 주 1회 → 4주 휴식 → 다시 4주간 주 1회**

세포 채집과 제조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별도이며, 실제 일정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제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여가 끝난 뒤에도 정기 진료와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와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Q5 치료비는 얼마이고, 재발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치료로 초기 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재발 여부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비용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치료 후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유예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5년 이내 재발 시에는 약정에 따른 환불 제도를 운영합니다. 치료를 결정하기 전 초기 납부액과 추가 납부액, 별도 검사·진료비, 환불 대상 금액과 적용 조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기준인 **'5년 무재발'**이 의학적으로 완치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림프종센터 전영우 교수

CAR-T세포치료/이중항체치료, 림프종,
조혈모세포이식, 면역세포치료,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캐슬만,
형질세포이상증후군,
야간혈색소 혈뇨증 (PNH),
(혈액)희귀질환

[오전] 월, 화, 수, 목, 금
[오후] 월, 화, 목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외상 대응 역량 나누는 특별강연 개최

국군수도병원 이호준 중령 초청… 군 외상 진료와 의료 준비태세 주제로 경험 공유



이호준 중령이 'Enhancing Medical Readiness'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Special Lecture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10월 12일 신관 2층 외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Special Lecture'**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국군수도병원 외과 이호준 중령을 초청해 'Enhancing Medical Readiness'**를 주제로 군 외상 진료 경험과 의료 대응 준비태세를 나눴다.

이호준 중령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외과 임상 펠로우십을 수료하고, 2025년 미국 마이애미 Ryder Trauma Center의 Army Trauma Training Center(ATTC)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강연에서는 대량사상자 상황에서의 외상 대응 훈련과 외상팀 운영 경험,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군 외상 진료 현장에서 축적된 훈련 경험을 공유하며, 중증외상 환자 대응에서 체계적인 팀 훈련과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살펴봤다. 강연에는 조항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과 외상 진료·간호 인력, 전문진료지원팀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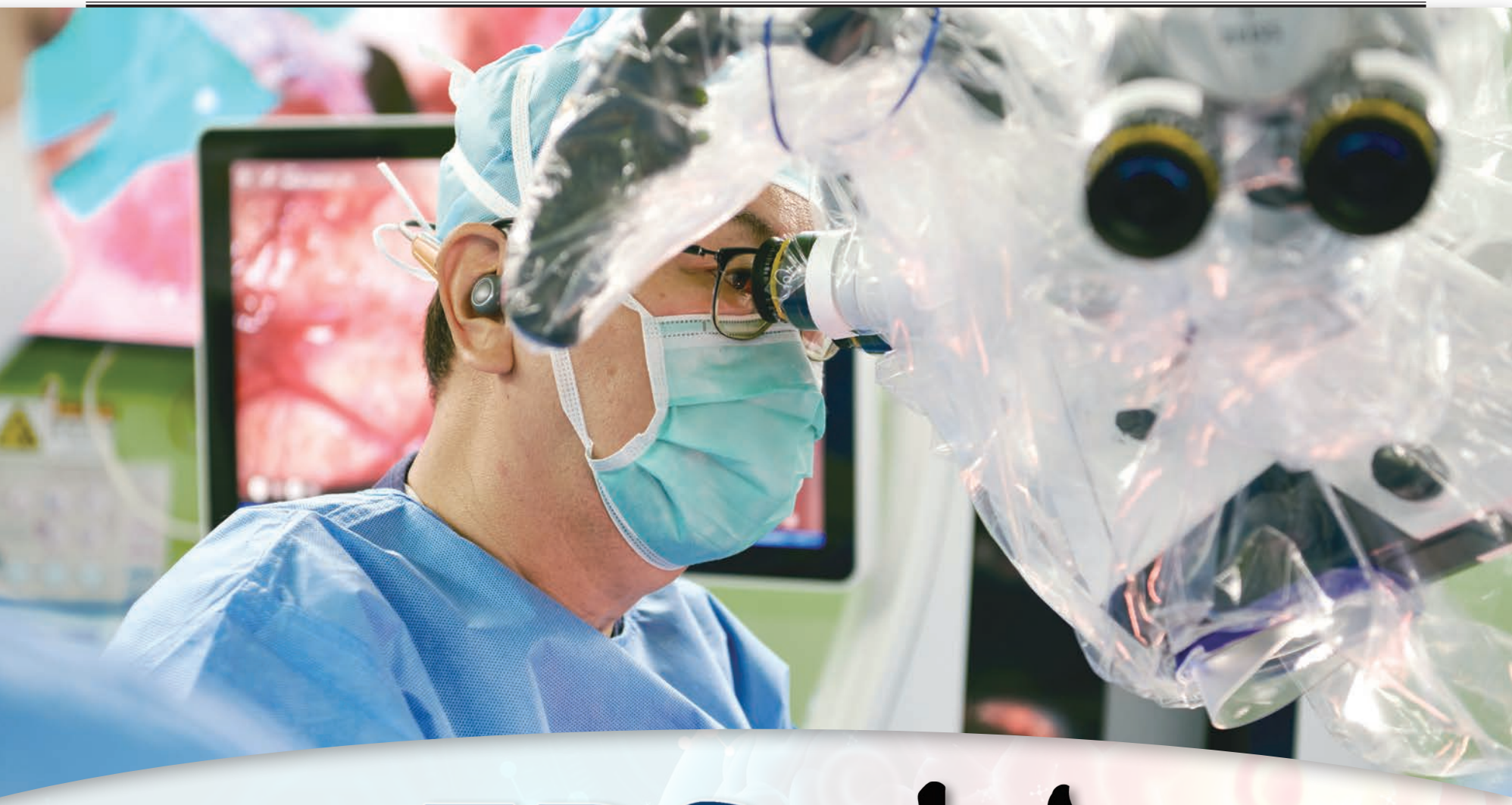
이번 특별강연은 **군과 민간 외상 진료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구성원들이 외상 대응 역량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EBS 명의

'젊어지는 뇌졸중! 골든타임이 달라졌다!' 편

제 989회(2026.10.02. 방송)

'뇌혈관질환 명의'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 출연

진료분야 | 뇌종양,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두부외상, 두통, 어지럼증, 안면마비, 안면경련, 방사선 수술
진료시간표 | 오전(화, 수) 오후(화)



EBS건강[명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EBS건강] YouTube 채널

blog.naver.com/cmcbucheon
www.facebook.com/cmcbu cheon
www.youtube.com/user/cmcbucheon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유방암, 환자와 함께 치료의 길을 열다



8개 진료과 협력

유방암센터 다학제팀이 함께 만드는 환자 맞춤형 치료

진단부터 치료까지
여러 진료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함께 치료 방향을 논의합니다

다학제 진료 시스템
8개 진료과 협력, 환자별 맞춤치료
유방외과/성형외과/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병리과

표적 항암치료
환자별 맞춤형 항암치료로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유방암 수술·재건술
유방보존술·유방재건술 등
수술 후 삶까지 고려한 치료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
국내 최고사양의
트루빔 2대 운영

최신 장비
국내 최고 사양
CT 및 초음파 장비 보유

모든 환자분의 여정에
유방암센터가 함께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료와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유방암센터 다학제팀이 환자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트루빔 4.1 방사선치료 준비 모습
방사선종양학과 이시원 교수